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 촬영 시 카메라가 찍기 시작하면서 멈출 때까지의 연속된 촬영을 '쇼트(shot)'라 하고, 이러한 쇼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연극의 '장(場)'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씬(scene)'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씬이 연결되어 영화의 전체 흐름 속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을 '시퀀스(sequence)'라 일컫는다.

시퀀스는 씬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에피소드 시퀀스'와 '병행 시퀀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에피소드 시퀀스는 짧은 장면을 연결하여 긴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삶을 다른 영화의 경우, 주인공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징적인 짧은 장면을 연결하여 인물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병행 시퀀스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둘 이상의 별개 사건이 교대로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범인을 추적하는 영화의 경우, 서로 다른 공간에서 쫓고 쫓기는 형사와 범인의 영상을 교차로 제시하는 방식이 좋은 예이다. 이 방법은 극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시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지가 없더라도 두 개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여 시간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을 수 있다.

시퀀스 연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원래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다른 이미지로 연결되는 디졸브 등의 기법을 사용하면 관객들은 하나의 시퀀스가 끝나고 다음 시퀀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러한 ㉠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쉽게 파악하고, 다음에 이어질 장면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달리 시퀀스의 마지막 부분에 시공간이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연결하여 급작스럽게 시퀀스를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고 의아함을 불러일으켜 시퀀스 연결 속에 숨은 의도나 구조를 생각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각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 시퀀스의 수가 적은 영화들은 느린 템포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사적 이야기 구조를 안정되게 제시하는 데 적합하다. 반면 길이가 매우 짧은 시퀀스를 사용한 영화는 빠른 템포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인물의 심리 상태 등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사의 줄거리를 분명하고 세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각 시퀀스에서 의미를 완결지어 관객으로 하여금 작은 단위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퀀스 전체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영화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화에 사용된 시퀀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영화의 서사 구조와 감독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8.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시퀀스의 연결 방법과 효과
- ② 시퀀스의 길이에 따른 특징
- ③ 영화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요소와 개념
- ④ 영화의 발전 과정과 시퀀스의 상관관계
- ⑤ 씬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른 시퀀스의 종류

29.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S# 5 서영의 자취방 앞(밤) 현우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 집을 나서는 서영. 현관 문을 잠그기 위해 열쇠를 꺼낸다. 그때 주머니에서 현우가 준 반지가 떨어진다.
B	S# 6 길가, 편의점 앞(밤) 같은 시각 편의점 앞. 승용차가 멈추고 서영을 만나기 위해 현우가 내린 후, 서영의 집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선다.
C	S# 7 서영의 자취방 앞(밤) 반지가 떨어진 것을 모르는 서영. 행복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잠시 후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선다.
D	S# 8 서영의 자취방 문 앞에서 서영의 자취방 문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발견한 현우. 슬픈 표정으로 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낸다. 대답 잘 들어요. 잘 지내요. 전화기의 전원을 끈다. (디졸브)
E	S# 9 사무실 안(낮) (자막) '2년 후' 활기찬 분위기의 사무실.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들과 동떨어져 홀로 컴퓨터를 바라보며 서류를 정리하는 서영.
F	S# 10 사무실 안(밤) (자막) '한 달 후' 퇴근하는 사무실 사람들. 혼자 남은 서영. 여전히 자신의 컴퓨터를 바라보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 ① A와 B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교대로 제시하여 시간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고 있다.
- ② A부터 D까지는 '서영'이 '현우'와 헤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퀀스로 볼 수 있다.
- ③ E에 사용된 자막은 A와 C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는 시간 표지에 해당한다.
- ④ D에서 E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E는 새로운 시퀀스의 시작에 해당한다.
- ⑤ E와 F의 연결은 시간의 흐름을 짧은 장면으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사건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겠군.
- ② ㉠과 ㉡은 모두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의미를 명확하게 완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겠군.
- ③ ㉠은 ㉡에 비해 관객에게 친숙한 내용을 낯설게 전하기에 적합한 방법이겠군.
- ④ ㉡은 ㉠과 달리 디졸브와 같은 다양한 편집 기법을 활용하겠군.
- ⑤ ㉡은 ㉠에 비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객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화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붉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 겁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긔 웃고)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애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화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화가 접시의 고기를 서둘러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화.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화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화를 뻥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 평광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혀 온다. ㉢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는 먼지의 마당. ㉤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 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화만이 턱을 악물

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화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홍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3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 ②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영화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불이는 영화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화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 ⑤ 영화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38. 학생들이 모두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활용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 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 ②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 ③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 ④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가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 ⑤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철거 위험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3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2,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 14 수능 예비시행 공통 43~45번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30대 중반의 정원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진사이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정원은 단속 사진을 인화하러 온 주차 단속원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끌리게 된다.

S# 56. 사진관 촬영실

사진기의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정원 얼굴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더, 턱 좀 내리고…….

그때마다 다림은 조금씩 움직인다.

정원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다림,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어색하다. 그래도 잠시 동안 화면을 보고 웃는데 정원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다.

S# 57. 상가 거리 (밤)

화장품 가게 안의 다림.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이것저것을 신중하게 고르다 주인에게 값을 묻고는 선택을 망설인다. 끝내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온다. 길가에 늘 어선 옷가게들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는 다림. 신사복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 남자 옷을 바라다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S# 78. 사진관 안 (저녁)

다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은 다림.
㉠ 곧 일어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정원이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다림을 보고 놀라는 정원. 다림이는 평소의 옷차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원 화장했네?

다림 왜, 보기 싫어요?

정원 아니.

다림 …….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중략)

다림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월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원 …….

다림 도널드 인형 쓰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애예요.

정원 그거 굉장히 더울 텐데 …….

다림 ○○월드 가면 개가 공짜로 표 얻어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

정원 근데?

다림 그냥 그렇다구요. 언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말이죠.

정원과 다림 잠시 말이 없다.

S# 79. 놀이 공원 - 롤러코스터 (낮)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정원과 다림. 정원과 다림의 아우성치는 모습.

㉡ 정원의 시점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보이는 풍경. 심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고속 촬영으로 흔들림과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며 화면도 어두워진다.

S# 80. 벤치 (낮)

정원과 다림은 하트를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다. ㉢ 사이를 두고 앉은 둘의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S# 81. 학교 운동장 (낮)

멀리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정원과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다림과 정원. 정원은 얼마를 못 가서 자리에 멈춰 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다. 정원을 뒤에 두고 달리는 다림. 혼자서 운동장을 달리는 다림.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정원. 다림, 정원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 오승욱·허진호·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진이라는 매개물이 두 인물의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연속된 장면들을 인과적 관계로 배열하여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사진관, 상가 등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여 그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면 속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 '정원'의 목소리의 병치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된다.
- ② ㉡: '다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③ ㉢: '다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정원'을 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④ ㉢: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정원'과 '다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45. S#81을 위 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화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 운동장 장면과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 겹쳐지도록 공간을 설정한다.
- ② 활기찬 '다림'과 병약해 보이는 '정원'이 대비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 ③ 조연들이 운동장을 함께 뛰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다림' 역을 맡은 배우는 호트러짐 없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달리기를 마치도록 한다.
- ⑤ 화면 속 날씨는 '흐린 날'로 설정하여 두 인물의 우울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더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러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경충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리길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갗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 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갗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가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님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 총회에서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엠포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었다.

- 김승옥, 『무진기행』 -

(나)

S#4. 윤기준의 방 안 (저녁) (현재)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기준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기준,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기준의 상반신.

윤기준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 내 ㉥*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 성묘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폭 쉬시다 오시면 대회생제약주식회사의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S#5. 같은 방 창밖 풍경 (저녁) (현재)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중략)

S#11. 시골 자동차길 (낮) (현재)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S#12. 버스 안 (낮) (현재)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훑히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 김승옥, 『안개』* -

* 인서트(Insert): 삽입된 장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신문이나 편지, 사진 등이 끼이는 것.

* 로우브: 길고 품이 넓은 겹옷. 여기서는 목욕 가운.

* ㉥: 효과음(Effect).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 『안개』: 『무진기행』을 각색한 시나리오임.

34.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 의식의 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빈번히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중심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적으로 서술하여 시대 배경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게 긴장을 풀고 공상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다.
- ② ㉡: 엉뚱한 공상을 하던 ‘나’에 대해 자조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 ③ ㉢: ‘나’의 무진행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한다.
- ④ ㉣: ‘나’에게 기대하는 ‘아내’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아내’의 말을 긍정하며 그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36. (나)는 (가)를 각색한 시나리오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서사 진행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회상의 방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아내’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비유적 표현으로 서술한 데 비해, (나)에서는 대사로 처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아내’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아내’의 말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서술하여 제시하는 데 비해, (나)에서는 ‘윤기준의 방 안’, ‘시골 자동차길’, ‘버스 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버스의 덜컹거림이 주는 느낌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 주는 데 비해, (나)는 그 느낌을 버스가 자갈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전달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장면(scene)은 시나리오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을 뜻한다. 장면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이 변할 때 나뉜다. 구분된 장면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행동의 연속성이나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시선의 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담아내게 된다. 장면 속에 담긴 여러 표현들은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 ① S#4에서 인서트된 사진은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보여 주기 위해 선택된 요소이다.
- ② S#4에서 등장하는 공간과 소품들은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된 요소들이다.
- ③ S#5의 창밖 풍경은 S#4의 공간과 대조되어 인물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 ④ S#4에서 S#5로의 전환은 방 안의 우울한 분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S#11에서 S#12로의 전환은 카메라의 시선이 버스의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 S#79. 팔각정 (낮)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 — 대질 심문을 받고 나온 수혁, 경필 일행이 회담장 앞에서 각각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카메라, 후진하면서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면 보타의 손이 쑥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소피: (영어) (봉투를 받아 들고) 뭐죠?

보타, 대답 대신 관측경을 들여다본다.

보타: (영어) 한국이 처음이었지?

㉡ 보타의 관측경으로, 판문각 앞에서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이 보인다.

보타: (영어) (목소리) 그대 ‘아버지’ 나라가 마음에 들턴가?

㉢ 판문각 쪽에서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소피의 모습이 잡힌다.

보타의 설명 사이사이, 한국전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과 좌우 투쟁, 종전 후 공산 포로 복송, 반공 포로 석방 및 제3국행 포로의 출발과 도착 장면들이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된다.

보타: (영어) (목소리) ㉣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처참한 살육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남으로의 귀순이나, 북으로의 귀환이나... 그 17만 포로 중 76명은 둘 다를 거부했어.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

소피, 놀란 얼굴로 손에 든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 그중 동그라미가 치진 사람 얼굴로 zoom in*.

보타: (영어) 표 장군이 매우 껌싸게 움직였더군. 국방부, 외무부, 인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사관... 며칠 사이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았어. 표 장군으로선 ㉥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

소피: (영어) (홍분해서) 3일이면 돼요. 곧 이 병장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가요.

(중략)

㉦ S#81. 소피의 숙소 (낮)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싸는 소피. 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으려다 말고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의 소피와 스위스인 엄마 사진. 액자 뒤를 열어 가족사진을 꺼낸다. 접힌 부분을 펴자 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난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는 소피.

S#82. 수사본부 (낮)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수혁, 목발을 짚었다. 사진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소피.

소피: (수혁을 돌아보며)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도 불편한데.

영문을 모르고 불러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고 출입구 앞으로 가는 소피, 과녁판에서 다트 화살을 뽑아 든 다음 서류 한 장을 쫓아 고정 시킨다.

소피: 내일 자정을 기해 나를 제이에스에이 근무에서 해제한 다는 명령서예요.

수혁: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소피: 그래, 내가 인민군 장교의 딸이란 얘길 듣고 기분이 어떻게 던가요?

수혁: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 소피,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가 군복 안에 받쳐 입은 터틀넥 스웨터의 목을 젖혀 보인다. 목에 나 있는 피명 자국.

소피: 난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병장은 깨끗하네요. 이 병장이 오 중사보다 힘이 센가 보지요?

당황하는 수혁, 대답 없다.

소피: 자,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정의 얼굴이 프린트된 출력물을 과녁판에 쏘는 소피. 당황하는 수혁.

소피: 수정 씨를 만나자마자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수정의 초상화를 과녁판에 쏘는 소피. 놀라는 수혁.

소피: 정우진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리고 이진 (찢어져 너털 너털한 얼굴 없는 사진을 과녁판에 쏘으며) 정우진의 시신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과녁판에 나란히 부착된 ㉨ 석 장의 이미지. 총격받은 표정의 수혁.

소피: ‘사라진 탄환’이 남 일병의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수혁, 애써 외면하고 걸어간다.

수혁: 그래서요?

④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켓 두 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소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에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수혁: 협박입니까?

소피: 거래죠.

수혁: 영장을 가든 혼장을 받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⑤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까?

소피: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예요.

-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

* 부감: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것.

* 줌인: 피사체의 크기를 점점 확대 촬영하는 것.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 ②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
-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 ⑤ ‘소피’는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 ② ㉡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
- ③ ㉢는 ‘소피’가 네 병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이다.
- ④ ㉣는 ‘수혁’이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제출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 ⑤ ㉣는 ‘수혁’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

41.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는 각각 관측경과 쌍안경으로 상대측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정하여 남북한 대치 국면에 있는 S#79 공간의 특수성을 그려야겠어.
- ② ㉢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과 달리 사진이나 기록 영상물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어.
- ③ ㉣는 동그라미 처진 얼굴을 확대 촬영하여 ‘소피’의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겠어.
- ④ ㉣는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겠어.
- ⑤ ㉣는 사건의 맥락이 관객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야겠어.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우치 대노 왈,

“홍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며,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궐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금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A]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추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험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 촌이요, 너비 삼 척 이 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회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담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담 왈,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담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풀어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추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 했습니다.

전우치: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황궁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했습니다.

전우치: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톱톱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어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툭 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전우치: 왕은 고개를 들라.

왕: 예?

전우치: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화. 궁녀 2 손에 들게 한다.

전우치: 어떨까?

왕: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우치: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왕: ...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우치: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 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왕: 감히 도사 노미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나는 궁중 악사들.

전우치: 도사 노미라? 에... 도사는 무엇이나?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이 쉬-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 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 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선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전우치: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 같으냐?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한다.

왕: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냥을 주겠다.

전우치: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웃음 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 최동훈, 「전우치」 -

41. (가)의 화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 ②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 간다.
- ③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 ④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 ⑤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42.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2: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3: 전우치가 임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4: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5: 전우치가 재산을 훔쳐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②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③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④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44.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 ②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씹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 ③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 ④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⑤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뀔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45.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 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 ②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 ③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 ④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 ⑤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 09 LEET(예비) 언어이해 11~13번

[11~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존 포드(John Ford) 감독은 서부 영화를 스트레스 해소용 활극에서 인문학적 깊이를 지니는 장르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데, 그의 작품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리버티 벨런스를 쓴 사나이>(1962)이다.

영화는 상원 의원 랜스가 과거를 회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동부에서 갓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랜스는 마차를 타고 서부 지역을 지나다가 무법자 리버티 벨런스 일당의 습격을 받아 큰 부상을 입는데, 톰과 그의 연인 할리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신본이라는 마을에 살게 된다. 그곳 사람들은 종종 마을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리버티에게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마을 보안관 역시 리버티 앞에서 별벌 때는 소인배일 뿐이다. 피바디라는 지식인이 ‘신본 스타’라는 신문사를 통해 근대적 이념을 전파하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문맹인 그곳에서 무력감만 느낀다. 리버티가 겁내는 사람은 자기보다 힘세고 총을 더 잘 쏘는 톰뿐이다.

랜스는 이러한 상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야학을 열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한편,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리버티의 법적 기소를 피한다. 그를 보면서 톰은 리버티를 이길 수 있는 건 총뿐이라며 비웃는다. 그러던 중 리버티 일당에 의한 피바디 살인 미수 사건이 벌어지자, 랜스도 법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결투를 통해 리버티를 쏘아 죽인다. 그래서 랜스는 ‘리버티 벨런스를 쓴 사나이’로 불리게 된다. 이윽고 서부에서도 연방 상원 의원 선거가 시작되자 랜스는 후보로 출마한다. 하지만 자신의 소신을 어기고 총을 사용했다는 죄책감에 후보직을 사퇴하려 하자, 톰이 나타나 자신이 숨어서 리버티를 저격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비밀을 얘기하던 중 톰은 “당신은 너무 생각이 많고 말도 많아.”라고 빈정대지만, 랜스가 유세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왔음을 쓸쓸히 받아들인다. 결국 랜스는 선거에서 이긴다. 그리고 톰을 사랑했지만 랜스 또한 사랑했던 할리는 랜스와 결혼한다.

영화는 이처럼 주먹과 권총의 시대가 가고 이성과 법의 시대가 시작되려는 미국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문화철학자 비코를 떠올리게 한다. 비코는 법제도가 이성적·객관적 실체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근대적 단계를 ‘인간의 시대’로, 개인의 감정과 물리적 힘이 최종심급(最終審級)이었던 야만의 단계를 ‘영웅 시대’로 부른다.

물론 포드가 비코의 저작을 읽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지만, 영화의 두 ‘사나이’는 비코가 대비시키는 두 시대 유형에 그대로 대응한다. 즉 톰과 랜스는 각각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대와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톰이 허리에 차고 있는 권총과 랜스가 들고 온 법전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대립적인 이미지는 랜스가 물을 끌어 들여 기르는 장미와 톰이 애착을 보이는 거친 사막의 선인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갈등 관계에 있는 두 대립적 가치를 하나의 예술적 장치로 엮어 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의 ㉠ 양가적(兩價的) 지향성을 우회적으로 노출시키는 포드 감독의 전략이다. 이는 등장인물에 포드 자신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특히 제목 자체가 두 인물을 동시에 가리킨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영화는 호쾌한 장면 연출을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다른 대부분의 서부극과 달리 관객에게 높은 수준의 감상 능력을 요구한다. 즉 이 영화의 예술적 이미지는 더 이상 감각적으로만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변용된 이미지로서, 피상적 접근 만으로는 판독될 수 없는 심층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예술 작품은 그것의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수용 과정에서도 지적 도야를 불가결의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한갓된 감각적 쾌 또는 [B]는 불쾌에서 소진되지 않는다. 더욱이 수작으로 평가되는 작품들에는 심층 의식, 사상, 가치관, 세계관 등은 물론 예술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생각까지도 예술적 장치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작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선이해(先理解)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그 작품들은 수수께끼로 남는다. 요컨대, 훌륭한 예술적 이미지는 육안으로 ‘보는’ 대상에 그치지 않는, 심안으로 ‘읽어야’ 할 일종의 텍스트인 것이다.

11. [A]의 ‘비코’의 분류에 따라 등장인물을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버티’는 철저히 ‘영웅 시대’의 법칙에 따라 사는 인물이다.
- ② ‘피바디’는 ‘인간의 시대’를 지향하지만 ‘영웅 시대’의 위력 앞에 한계를 느끼는 인물이다.
- ③ ‘보안관’은 ‘인간의 시대’를 형식적으로 대변하지만 오히려 ‘영웅 시대’에 순응하는 인물이다.
- ④ ‘랜스’는 ‘인간의 시대’의 법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영웅 시대’의 종말을 가져온 인물이다.
- ⑤ ‘톰’은 ‘영웅 시대’의 법칙에 따름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의 시대’의 도래를 앞당긴 인물이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숨어서 악당을 쏘도록 설정함으로써 서부 영화의 주제인 정의의 구현 이면에 숨겨진 비검함을 동시에 보여 준다.
- ②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삼각관계를 통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서부극의 일방적인 이분법적 시각을 여전히 드러낸다.
- ③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에 대한 동시적인 미련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시대의 삶의 방식에 대한 동시적 애정을 반영한다.
- ④ 근대 국가로서의 미국의 가치를 드러내려 하지만, 남녀 사이의 복잡한 애정 관계를 다룬 멜로물의 요소 또한 뿌리치지 못한다.
- ⑤ 한 나약한 인간이 강자로 성장해 가는 해피 엔딩의 전형적 구조에 따르면서도, 현실의 충실한 반영을 넘어선 서부극 특유의 공상적 주제를 구현한다.

13. [B]의 관점에 따라 예술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빈치의 그림 <성안나와 성모자>는 그의 출생 내력과 유년기 경험이 묘한 동성애적 코드로 변형된 무의식 세계를 함축하고 있어서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 ②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는 이집트 신화 모티프를 차용하고 여러 익살적인 장면과 고난도의 아리아를 활용하여 예술의 심미적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프리메이슨의 선진적 정치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
- ③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합리적 이성의 일방적 독주를 경계하면서 감성적 차원을 옹호하려는 그의 낭만주의적 인간학을, 이를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한 남자의 좌절이라는 통속적 줄거리 속에 담고 있다.
- ④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즉흥적인 소음뿐 아니라 정적(靜寂)까지도 음악적 소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음악의 본질 문제에 대한 미학적 질문을 던진 도발적 실험이다.
- 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요셉과 멋진 색동옷>은 구약 성서에서 그 소재를 빌려 오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록, 컨트리, 탱고, 칼립소 등 다양한 음악 양식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관객에게 편안한 즐거움을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다.

◆ 12 LEET 언어이해 33~35번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멜로드라마’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통속적 이야기를 화려한 볼거리와 음악을 통해 보여 주는 대중 연극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멜로드라마에서는 대개 사악한 봉건 귀족에게 쫓겨나는 선하되 약한 부르주아의 이야기가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채 다만 비약이나 우연 같은 의외성에 기대어 부르주아의 덕행과 순결함이 어떻게든 승리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19세기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멜로드라마의 인물 구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봉건 귀족의 자리는 약화되 강한 인물이 대신하고 그에 의해 고통 받는 선량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멜로드라마에서는 가족의 위기, 불가능한 사랑, 방해받는 모성, 불가피한 이별 등으로 주인공이 고통을 겪다가 행복해지는 과정이 다루어졌고, 선악 대립보다는 파토스(pathos)의 조성이 부각되었다. 곧 약자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과장되게 보여 주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약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파토스의 과잉은 그 나름의 의의를 지녔다고 할 만하다.

20세기에 들어서 멜로드라마는 영화로 중심을 옮겨 갔다. 영화는 클로즈업을 통해 관객들이 인물에 감정 이입을 하게 하기 쉬웠고, 통속성과 스펙터클을 만들어 내기에도 적절했으며, 음악을 통해 과잉된 정서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멜로드라마 영화는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로부터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 따른 억압적 상황에서 고통 받는 약자, 특히 여성들로부터 파토스를 이끌어 냈다. 이들은 가부장제나 계층적인 차이로 고통 받으면서도 허락되지 않은 삶의 지평을 갈망하는 ‘어찌할 수 없음’의 상황에 놓인 존재들이다. 일례로 비더의 ㉠ <스텔라 달라스>(1937)에는 상류 계급의 문화 장벽을 넘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져야 했던 하층민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딸을 곁에 두고 싶어 하면서도 딸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길 바라는 가운데 마음 깊이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결국 딸을 상류층의 전남편에게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은 희생적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타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딸의 결혼식을 창밖에서 바라보던 어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고통 어린 만족을 선택한 모성에 공감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1950년대에 할리우드는 ‘가족 멜로드라마’라는 또 다른 멜로드라마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 멜로드라마는 통속적 서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의 축도와도 같은 미국 중산층 핵가족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족이 자본이나 가부장제 같은 사회 권력이 작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크의 ㉡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1955)은 유복한 과부와 연하의 정원사의 사랑과 시련, 그리고 재회의 과정을 보여 주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결합을 반대하는 자식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애뜻한 유대의 단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관리하는 제도가

된다. 따라서 자식들의 반대로 사랑을 포기했던 그녀가 거듭된 우연 끝에 병상의 정원사와 재회하게 되는 결말은 의미심장하다.

가족 멜로드라마로서 이 영화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어 온 멜로드라마의 주요한 특징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멜로드라마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에 눈감은 채 주인공의 성공에 안도하는 기존의 ‘행복한 결말’과는 구별되는 ‘행복하지 않은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크는 여전히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결말에 관객들이 주목하게 하여,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만들어진 현실’이며 행복한 결말은 인위적인 허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자 했다. 고도로 표현적인 미장센(장면화)을 통해 여주인공이 누리는 삶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중산층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으로 인한 억압과 소외의 상황임을 드러냈던 것이다.

멜로드라마는 ‘부적절한 리얼리즘’이니 ‘여성용 최루물’이니 하는 등의 비하하는 말로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서크의 영화에서처럼 멜로드라마는 사회적 약자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전달하는 서사이면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아이러니한 반응으로도 읽힐 수 있다. ㉢ 현실에 종속되면서도 그 현실을 넘어서려는 절박한 요구는 영화라는 재현 체계 속에서 대중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멜로드라마를 생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33. ‘멜로드라마’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갈등을 낳은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내용은 없었다.
- ㉡ 통속성이 점차 사라졌고 정서 표출보다는 현실 묘사에 치중하게 되었다.
- ㉢ 영화에 나타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전환되어 표현된 것이다.
- ㉣ 작위적인 서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 ㉤ 인물들의 선악 대립이 차츰 약해지고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의 파토스가 형상화되었다.

34.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과 ㉡ 모두 음악을 사용하여 인물의 고통과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 ㉡ ㉠은 ㉡에 비해 관객들이 여성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더 강했을 것이다.
- ㉢ ㉠에 비해 ㉡은 결말에서 관객들에게 더 능동적인 감상을 이끌어 내려 했을 것이다.
- ㉣ ㉠과 ㉡ 모두 현실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약자를 그렸을 것이다.
- ㉤ ㉠과 ㉡ 모두 위기에 빠진 중산층 가족의 가치 회복이라는 주제 의식을 담았을 것이다.

35. 한국의 대표적인 멜로드라마에 대해 ㉠에 주목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한몽>에서 돈 많은 악인 김중배로 인해 심순애가 변심하고 가난한 애인 이수일이 정신적인 파탄에 이르는 모습은 돈과 사랑을 대립적으로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 준다.
- ② <검사와 여선생>에서 살인범의 누명을 쓴 여선생 앞에 검사가 된 제자가 나타나 사건을 해결하지만, 작품의 초점은 세상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한 약자의 사정을 보여 주는 데 있다.
- ③ <자유부인>에서 사회 활동을 갈망했던 가정주부 오선영이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은 춤바람이 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실상 이 춤바람은 권위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반발로도 볼 수 있다.
- ④ <미워도 다시 한 번>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친아머지의 집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지만 떠나야 하는 아이가 처한 상황은 인간 운명의 어찌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⑤ <별들의 고향>에서 도시에 진입했다가 이기적인 남성들에 의해 버림받고 점점 타락해 가는 경아라는 여성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를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